

문 의	산업재산보호협력국 다자기구팀	과 장 임현석	042-481-8197
	산업재산보호협력국 국제협력과	사무관 황상동	042-481-5071
	산업재산보호협력국 국제협력과	과 장 박용주	042-481-5063
		서기관 이진용	042-481-8659
		2017년 10월 11일(수) 오전 11시 이후 게재 바랍니다.	

- 특허청장 WIPO 총회 참석 및 주요 성과 -

- 특허청(청장 성윤모)은 10월 11일(수), 최근 개최된 제57차 세계 지식재산기구(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¹⁾ 회원국 총회 기간 중 주요 활동 내용과 성과를 발표하였다.

○ 지난 10월 2일(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막된 이번 WIPO 총회에는 전 세계 191개 WIPO 회원국이 참가하여 한 해 동안 WIPO 운영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사업 추진 방향을 결정하였다.

○ 성 청장은 총회 개막일 기조연설을 통해 인공지능, 빅 데이터 등 제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지재권 환경변화에 국제사회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촉구하였다.

- 또한, 프란시스 거리(Francis Gurry) WIPO 사무총장을 만나 국제 지재권 협력을 위한 한국 신탁기금 활용 사업의 성과도 공유하였다.

○ 더불어 성 청장은 미국, 유럽 등 지재권 선진국을 포함한 8개국과의 연쇄 회담을 통해 양국 간 협력사항을 포함한 다양한 지재권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기회를 가졌다.
- 1) WIPO는 UN 산하 16개 전문기구 중 하나로 지식재산 분야 전반을 총괄하는 국제기구이다. WIPO 회원국 총회는 191개 회원국의 특허청장들이 참석하여 특허제도 조화, 개도국에 대한 기술지원 등 지식재산 관련 주요 국제현안에 대하여 논의하는 자리로서, 매년 9월~10월 중 WIPO 본부가 위치한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다.
- 1 -

- 특히, 이번 양자회의에서 5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함으로써, 선진 특허청 간 심사협력, 지재권 데이터 교환, 특허분류(CPC; Cooperative Patent Classification)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신흥/개도국에 대한 특허 행정 서비스 수출을 위한 기반을 확대하였다.
- 또한, WIPO 사무총장 주최의 주요 14개국 특허청장 회의와 각국과의 양자 회담 등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 분야인 인공지능, 빅데이터를 지재권 제도로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그리고 이러한 기술을 어떻게 특허행정에 접목시켜 나갈 것인지 논의하였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따른 국제사회의 공동 노력 촉구

- 기조연설 및 WIPO 사무총장 면담 -

○ 성윤모 특허청장은 지난 10월 2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WIPO 회원국 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 시대 기술 발전 가속화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지재권 환경 변화를 촉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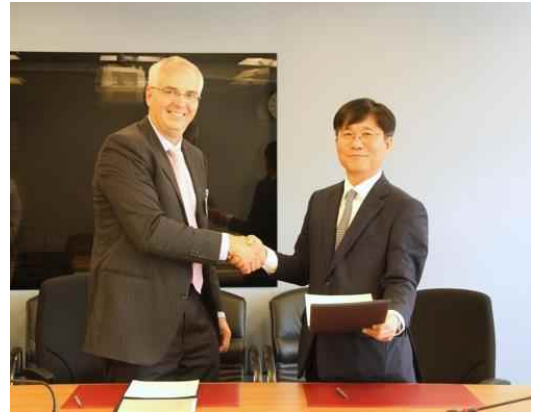


- 특히, 최근 국제적으로 증가하는 지재권 관련 위조품 유통을 막기 위한 강력한 지재권 보호와 함께 타인의 '기술 및 아이디어 등에 무임승차하는 행위'도 포괄적으로 막을 수 있는 유연한 지재권 보호 방안이 WIPO에서 보다 활발히 논의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또한, 지재권 분야에서 우리나라 등 아시아 지역 국가들이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WIPO에서 아시아 지역 사용자들에 대한 글로벌 지재권 서비스 강화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 마지막으로 '적정기술 및 브랜드 개발 전략 지원' 등 우리나라의 지재권을 활용한 개도국 지원 사업을 소개하고,
 - 우리나라의 발전 경험을 바탕으로 선진국과 개도국 간 개발 격차 해소를 위한 우리나라의 역할 확대를 약속하였다.
- 한편, 성 청장은 프란시스 거리 WIPO 사무총장을 만나(10월 4일) 올해 4월 WIPO와 공동으로 개최한 '아시아 지역 특허청장 컨퍼런스' 개최 등 국제 지재권 협력을 위한 한국신탁기금 활용 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 4차 산업혁명 시대 글로벌 지재권 제도 발전을 위한 WIPO와의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선진 특허청간 협력 강화로 심사 인프라 고도화

◆ 미국과 개선된 심사협력 프로그램 연장 합의

○ 성윤모 특허청장은 지난 10월 1일, 스위스 제네바 WIPO 본부에서 조셉 머털(Joseph Matal) 미국특허상표청(USPTO) 청장 직무대리와 특허 공동심사 프로그램(CSP 2.0; Collaborative Search Pilot 2.0)을 2020년까지 연장하여 시행하기로 합의하였다.



- CSP는 우리 청이 처음으로 제안한 새로운 형태의 국가 간 심사협력 프로그램으로, 출원인이 양국에서 신속한 심사서비스를 합리적인 가격에 이용할 수 있다는 데 특징이 있다.
- 이 프로그램을 통하면, 양국 심사관이 심사에 착수하기 전에 서로의 검색결과와 특허성에 대한 판단 결과를 교환하기 때문에, 심사 품질을 높이고 심사 결과의 일관성도 향상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지난 2015년 9월부터 2년간 시행된 1차 시범사업에 비해, 이번에 합의된 2차 시범사업은 기간이 3년(2017.11.1.-2020.10.31.)으로 연장되었을 뿐 아니라, 신청 요건이나 진행 절차 등이 간소화되었기 때문에, 출원인의 이용이 더욱 활발해 질 것으로 전망된다.
- 특히, 이번에 미국이 우리나라와 CSP 시범사업 연장에 합의한 것은 지난 2년간의 시행 경험을 통해 동 사업의 효용과 유용성을 상호 인정한 것으로서, 향후 동 사업을 중국 등 다른 나라로 확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 유럽과 상표·디자인 공보 교환에 합의

- 성윤모 특허청장은 10월 2일, 스위스 제네바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크리스띠앙 아흐샹보(Christian Archambeau) 유럽지식재산청(EUIPO) 차장과 상표·디자인 데이터 교환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 이번 MOU 체결을 계기로 EU의 상표, 디자인 데이터를 심사과정에 자유롭게 활용이 가능해 짐에 따라, 우리나라의 상표 및 디자인 심사 품질 향상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 또한, 성 청장은 최근 심화되는 온라인 위조품 유통 문제와 국경을 넘나드는 지적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양청을 비롯하여 여러 나라의 지적권 집행 담당 기관들을 아우르는 다자간 협력체를 통한 국제 공조의 필요성을 강조하였고,
 - 양청은 내년도 업무 계획(Work Plan) 수립 과정에서 이러한 제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 뿐만 아니라, 양청은 상표 및 디자인 분야 세계 5대청(각각 TM5 및 ID5)의 일원으로서, 향후 각 협력체에서 추진 중인 프로젝트들의 진행 과정에서 사용자의 참여를 보장하고 이를 확대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다.

◆ 유럽특허청과 선진 특허분류 분야 협력 합의

- 성윤모 특허청장은 10월 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베누아 바띠스텔리(Benoît Battistelli) 유럽특허청(EPO) 청장과 선진 특허분류 체계인 CPC(Cooperative Patent Classification) 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 이번 MOU는 그간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선진 특허분류 시스템의 개정 과정에 우리나라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 CPC가 국제특허분류인 IPC(International Patent Classification)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나라가 특허분류 분야에서 국제 기준과 규범을 미국, 유럽과 함께 형성해 나가는 위치에 이르렀음을 보여준다.
- 또한, 이번 MOU 체결은 글로벌 지재권 무대에서 한국 특허청과 한국어 특허문헌이 가진 비중과 중요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향후 우리나라가 강점을 보이는 기술 분야에서 특허 분류의 국제적 표준 설정에 유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지재권 행정 서비스 수출 확대 및 국제 협력 다각화

◆ PCT 국제조사 서비스 수출, 중·남미로 확대

- 성윤모 특허청장은 지난 10월 2일, 스위스 제네바 WIPO 본부에서 모니카 라미네즈(Mónica Ramírez) 콜롬비아 상공감독원(SIC; Superintendence of Industry and Commerce) 부원장(Deputy Superintendent)과 한국을 콜롬비아의



국제조사기관*(ISA; International Searching Authority) 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 * PCT 출원은, 선행기술을 검색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당 출원의 특허성 여부를 판단하는 ‘국제단계(International Phase)’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데, 국제단계 심사는 우리나라 특허청을 비롯한 22개 ISA만이 수행함. 콜롬비아 특허청은 ISA가 아니기 때문에, 자신이 접수한 PCT 출원에 대한 국제단계 심사를 위해 다른 ISA를 지정해야 하는데, 이번에 우리나라 특허청을 추가적으로 지정함. (기존 콜롬비아는 칠레, EPO, 스페인, 브라질, 호주를 ISA로 지정)
- * 우리나라를 자국의 ISA로 지정한 국가: 미국, 싱가포르, 뉴질랜드, 호주, 사우디, 멕시코, 콜롬비아 등 16개국 (1건당 1,114USD의 유상 서비스)
- MOU 체결로 콜롬비아 출원인이 우리의 앞선 PCT 국제조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으며, 한국의 이 서비스를 유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 나라는 모두 16개국이 되었다.
- 특히, 이번 MOU는 콜롬비아의 적극적 요청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이는 우리 특허청이 PCT 국제조사기관으로 세계 4위의 처리 건수를 기록하면서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해 온 것에 대한 국제적 평가가 그 배경이 된 것으로 분석된다.

◆ UAE 지재권 협력, 종합 컨설팅 분야까지 확대

- 성윤모 특허청장은 10월 3일, 스위스 제네바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모하메드 쉬히(Mohammed Al Shihhi) UAE 경제부(Ministry of Economy) 차관과 회담을 갖고 UAE 지재권 인프라 강화를 위한 지재권 종합 컨설팅 사업의 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양국 간에 논의되고 있는 지재권 종합 컨설팅 사업은 특허심사조직 설립, 법·제도 개선, 심사인력 양성 등을 포함한 UAE의 종합적인 지재권 전략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약 120만 불 규모의 유상 컨설팅을 한국 측이 UAE 측에 제공하는 것으로 그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 지재권 종합 컨설팅 사업

- 국제특허등록센터 설립·운영에 관한 중·장기 종합계획(안) 수립

구분	수행범위	예산(안)
조직/인력	▪ 조직/인력 설계 ▪ PCT ISA 설립 관련 로드맵 및 실행계획 수립	34만불
교육	▪ 신규심사관 과정 설계 및 심사관 교육 실시	32만불
법률	▪ 지재권법 하위법령 개정(안) 마련	29만불
정책	▪ 출원증가를 위한 창출모델 개발	31만불

◆ 동유럽 국가와 포괄적 지재권 협력 개시

- 성윤모 특허청장은 지난 10월 3일, 스위스 제네바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티타추크 미하일 이바노비치(Titarchuk Mikhail Ivanovich) **우크라이나** 경제무역개발부(MEDT; Ministry of Economic Development and Trade of Ukraine) 차관과 **지재권 분야 포괄적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 * 동 MOU는 인력 교류, 지재권 법령 개정 동향 공유, 지재권 인식 제고, 교육 훈련 등의 분야에서의 협력을 도모.
- 이는 우리나라가 동유럽 국가와 맺은 최초의 지재권 분야 포괄적 협력 MOU로서, 지재권 분야 국제 협력을 해당 지역으로 확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 특히, 우크라이나는 지재권을 정부 주요 정책 분야의 하나로 설정하고 지재권 전문 법원 설립을 비롯하여 지재권 시스템 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 바,
 - 동 MOU 체결을 계기로 우리의 앞선 경험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우크라이나 지재권 인프라 개선을 위한 다양한 협력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 협력을 통한 4차 산업혁명 대응 방안 모색

◆ 인공지능의 지재권 행정 활용, 호주와 실무협력 추진

- 성윤모 특허청장은 지난 10월 3일, 스위스 제네바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패트리시아 켈리(Patricia Kelly) 호주 지식재산청(IP Australia) 청장과 회담을 갖고 인공지능의 지재권 심사 활용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 양 청장은 검색, 상담, 분류 등 특허행정에서 인공지능이 활용되고 있거나, 앞으로 활용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서로의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였고, 향후 실무차원의 협력을 모색하기로 합의하였다.
- 한편, 양 청장은 글로벌 지재권 이슈 중의 하나인 특허조화 논의의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하고, 관련 논의에 사용자 참여를 보장할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였다.

* 현재 패트리시아 켈리(Patricia Kelly) 청장은 WIPO 차원에서 특허조화 논의를 이끌고 있는 B+ 서브그룹의 의장이며, 우리나라는 B+ 서브그룹 논의 뿐 아니라 논의의 또 다른 축인 IP5의 특허조화전문가패널(PHEP; Patent Harmonization Experts Panel)에도 참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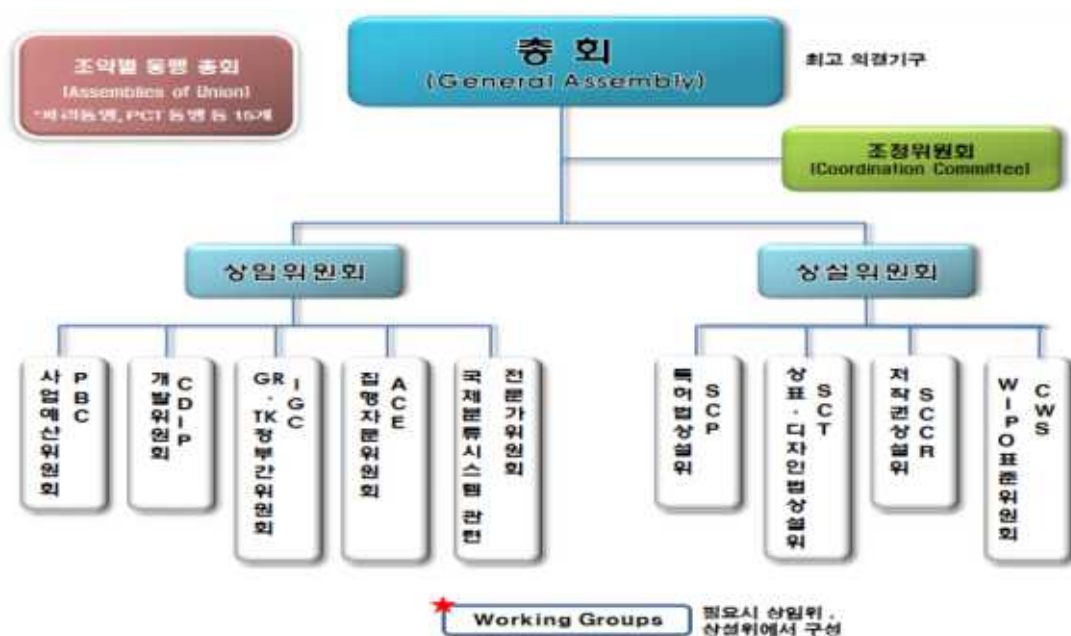
/끝/

□ 개 요

- (기능) 지식재산 분야 전문기구(UN 산하 16개 전문기구 중 하나)로서 국제 지재산 규범 형성 주도 및 지식재산 등록서비스 제공
- (회원국) 우리나라*, 미국, 일본, 중국, 독일, 프랑스 등 총 191개국
* 우리나라는 1979. 3. 가입(북한은 1974. 8. 가입)
- (연혁) 1967. 7. 14. WIPO 설립협약이 채택(1970. 4. 26. 발효) 되었고, 1974. 12. 17. UN 전문기구 지정
- (관장조약) 총 26개(산업재산권 17개, 저작권 8개, WIPO 설립협약)
※ 우리나라는 총 19개(산업재산권 11개, 저작권 7개, WIPO 설립협약) 가입
- (사무국) WIPO의 일반 사무업무를 관장, 제네바에 소재
※ 5개 지역사무소(일본, 싱가포르, 중국, 브라질, 러시아) 운영 중, 2개지역사무소(나이지리아, 알제리) 개소 예정

□ 주요 의사결정 기구

- 총회(최고 의결기구), 조약별 동맹총회, 조정위원회(총회 자문기구) 및 상임위원회, 상설위원회에서 주요 의사 결정



□ 사업 목적

- WIPO에 한국신탁기금을 출연하여 개도국·최빈국의 지식재산 분야 역량 강화 및 인식 제고를 위한 사업 추진
- 우리나라의 국격 제고 및 지식재산 분야 외교력 강화

□ 추진 경과

- '04. 6. 특허청-WIPO간 한국신탁기금 설치를 위한 MOU 체결
- '11. 9. 지재권 교육 분야 WIPO 한국신탁기금 MOU 추가 체결

□ 사업 성과

- (진행) 1차('04)~13차년도('17. 6.)간 총 113개 사업을 진행하였고, 현재 14차년도 사업('17. 7.~'18. 6.) 진행중
 - '04년부터 '16년 까지 총 13개차년도 사업을 위해 108억원* 지원
 - * ('09~'10) 매년 8억원 → ('11) 9억원 → ('12~'15) 매년 10억원 → ('16) 12억원
- (성과) IP 정책·정보화 해외 수출, 지재권 보호기반 구축 및 인식 제고
 - 적정기술 경진대회*, 개도국 심사관 특허·상표 교육 과정 등을 통해 개도국에 우리나라 지식재산 정책 및 경험 전파
 - * '17년에는 4개국(도미니카, 파나마, 엘살바도르, 코스타리카)에서 개최
 - 아랍지역 IP 역량제고를 위한 카이로 공동선언* 채택('10. 3.) 및 어린이용 지재권 교육 애니메이션 개발('12. 9.)
 - * KIPO-WIPO-아랍연맹 「지식재산협력 강화를 위한 카이로 공동선언」
 - 국내 IT 기업·특허정보 업체 해외 진출 지원 및 IP Panorama(IP e-러닝 콘텐츠) 보급 및 UN 공용어(영·프·중·러·스·아랍어)판 제작
 - ASEAN 등 13개국 대상 아시아 지역 특허청장 컨퍼런스 개최('17. 4)
 - 학생 및 일반인 대상 IP 여름학교 교육과정 운영

□ 사업 목적

- 국내외 지재권 인력 경쟁력 강화, 지재권 격차(IP-Divide) 해소, 지식 재산 한류 확산 등을 위해 글로벌 지재권 교육 콘텐츠 개발 및 보급

□ 추진 경과

- 다양한 교육 수요자 맞춤형으로 글로벌 지재권 교육 콘텐츠 개발
- WIPO, APEC 등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既개발한 교육 콘텐츠 확산 및 이를 활용한 교육 과정 운영

<< 생애주기별 맞춤형 글로벌 지식재산 교육 콘텐츠 학습체계 >>



발명왕 뽀로로
발명학습 애니메이션
(유·소년)



발명탐정 진
발명학습 게임
(초등학생)



디지털 창의와 발명
발명학습 디지털 텍스트북
(중학생)



인벤션시티(Invention City)
발명학습 게임
(중·고등학생)



닥터 폴(Dr. Paul)
발명학습 게임
(중·고등학생)



IP 이그나이트(IP Ignite)
국제법적 관점에서 지식재산 학습
(대학(원)생)



IP 파노라마(IP Panorama)
지식재산 활용전략 학습
(기업인)



IP 파노라마 모바일(IP Panorama Mobile)
지식재산 활용 사례 학습
(일반인)



IP 익스피다이트(IP Xpedite)
특허정보 검색·활용 방법 학습
(특허정보활용 전문가)

의제	논의 및 합의 사항
1. 한-미 고위급 회담 * 미국특허상표청(USPTO)	
CSP 2.0 MOU 체결	간소화한 개선된 특허 공동심사 프로그램(CSP 2.0; Collaborative Search Pilot 2.0)을 2020년까지 연장하여 시행
디자인 DAS(Digital Access Service) 교환	내년 6월부터 전자적 우선권 서류교환을 개시기로 합의
IP5 차기 청장회의	와이오밍 주 잭슨홀(Jackson Hole)에서 루이지애나 주의 뉴올리언즈(New Orleans)로 개최 장소 변경
2. 한-콜롬비아 고위급 회담 * 콜롬비아 상공감독원(SIC)	
PCT ISA/IPEA MOU 체결	우리나라를 특허협력조약(PCT; Patent Cooperation Treaty) 출원에 대한 국제조사기관(International Searching Authority)으로 지정
3. 한-EUIPO(유럽지식재산청) 고위급회담	
상표·디자인 데이터 교환 MOU 체결	EUIPO의 상표 및 디자인 데이터의 심사 및 대민검색 활용 가능
2018년 Work Plan	지재권 집행분야를 추가하는 방안을 논의기로 합의
TM5/ID5	사용자 참여·확대를 위한 협력방안 논의 및 노력 합의
4. 한-호주 특허청장 회담	
특허제도 조화	글로벌 특허조화 논의 관련 정보 공유 및 논의 진척 가속화를 위한 사용자 참여 강화방안 논의
AI의 특허행정 활용	양 청 현황 공유 및 실무 차원의 협력 추진 합의
5. 한-일본 특허청장 오찬	
현황 공유	차기 한중일 청장회담(12.6, 제주) 준비 상황 및 주요 의제, 양국의 WIPO Trust Fund 운용 현황 공유
6. 한-우크라이나 고위급 회담 * 우크라이나 경제개발부(MEDT)	
포괄적 협력 MOU 체결	인력 교류, 지재권 법령 개정 동향 공유, 지재권 인식 제고, 교육 훈련 등을 포함한 포괄적 협력 MOU를 체결
7. 한-UAE 고위급 회담	
지재권 종합 컨설팅	UAE 내 컨설팅 사업 진행경과 공유 및 향후 추진 방안 논의 * 컨설팅(consultancy)보다는 협력(cooperation)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합의
특허정보시스템 개통식	11월로 예정된 개통식 청장 참석 요청
8. 한-EPO(유럽특허청) 청장 회담	
CPC MOU 체결	선진 특허분류 체계인 CPC(Cooperative Patent Classification) 개정 과정에 한국이 참여할 수 있는 통로 확보
2017-2019 Work Plan 서명	CPC 이행, 데이터 교환 등 2019년까지 양청 협력추진 계획 확정

특허 공동심사(CSP, Collaborative Search Program)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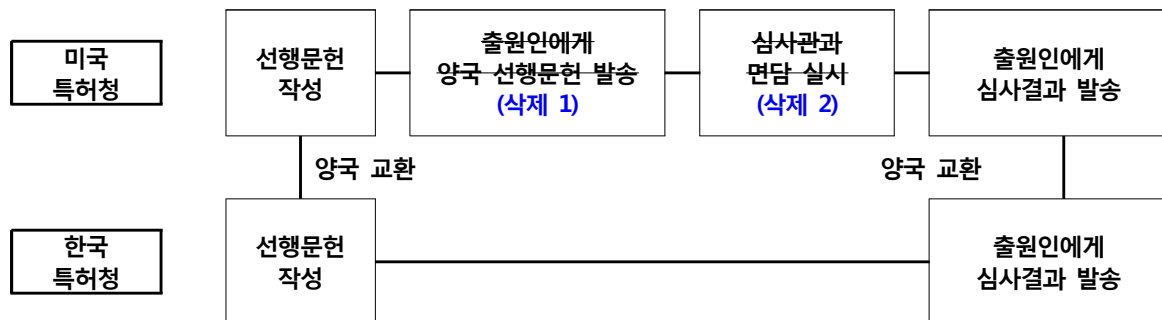
- ➔ (개념) 두 나라에 동일한 발명이 특허출원된 경우, 양국이 선행기술 정보를 공유하고 다른 출원 건보다 빠르게 심사해 주는 프로그램
- ➔ (출원인 혜택) ① 선행기술 정보 공유로 강한 특허 창출, ② 빠르게 심사해 주어 조기에 특허 취득, ③ 빠르게 심사해 줌에도 양국 우선심사 신청료 무료

□ 그 간의 경과 및 향후 일정

- [‘15.9월~’17.8월 (2년)] 1차 시범사업 시행*
 - * 총 111건 신청: 국내 77건, 외국기업 34건
- [‘17.10월] 2차 시범사업 시행 MOU 체결
- [‘17.11월 ~ ’20.10월 (3년)] 2차 시범사업 시행
 - * ‘17.9월~10월 2차 시범사업 준비(절차 개선)를 위해, CSP 신청 접수 중지

□ 2차 시범사업 절차 개선

- (업무 프로세스) 프로세스 간소화(삭제 1, 2)를 통해 미국의 IDS_(Information Disclosure Statement)* 문제 및 불필요한 면담절차 해소
 - * 출원발명의 특허요건 판단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정보를 출원인이 제공해야 하는 의무로 위반시 특허권 행사 제한



- (신청 요건) 청구항 대응범위 감축(신청요건⑤) 등 출원인 신청편의 제고

1차 시범사업	2차 시범사업
① 양국 출원의 최우선일이 동일할 것 ② 신청 전 또는 신청과 동시에 심사청구할 것 ③ 양국 출원이 심사착수 전일 것 ④ 하나의 출원에 기초하여 신청할 것 ⑤ 양국 출원의 대응 청구항이 동일할 것 ⑥ 최우선일이 '13.3.16. 또는 그 이후일 것 ⑦ 청구항이 20개 이하일 것(독립항은 3개 이하) ⑧ 2개 이상 청구항을 인용하는 청구항이 없을 것 ⑨ 양국 출원인이 동일할 것 ⑩ 발명의 단일성을 만족할 것	① ~ ④ ➡ 유지/ ⑤ ➡ 수정 (양국 출원의 대응 독립항이 동일할 것) ⑥ ~ ⑧ ➡ 유지/ ⑨ ~ ⑩ ➡ 삭제

구분	내용
경과	■ [2013.1.] USPTO-EPO, CPC 분류체계 공동 개발 ■ [2014년 상반기] USPTO-EPO, 우리 청에 CPC 협력 MOU 체결 요청 ■ [2014.6.] KIPO-EPO, CPC MOU(2014.6.-2017.6.) 체결 ■ [2015.1.] KIPO, CPC 분류체계 전면 도입 * 신규 출원을 CPC로 분류하고, 심사관 업무분장도 CPC 적용 ■ [2017년 상반기] 중국과 함께 우리 청이 CPC의 가장 큰 사용자 그룹인 만큼 우리 청의 CPC 권한 확대를 포함하여 개정작업 논의 개시
MOU 주요 개정내용	■ 우리 청의 CPC 분류개정 참여 확대, 심사관 교육 및 데이터 교환 확대, 양 청의 분류품질 관리 협력 강화 - (MOU 기간) 2017.10.-2020.6. - (권한 확대) 분류개정 열람 → 분류개정 제안 및 의사결정과정에 의견 제시 * 다만 최종 결정은 미국, 유럽 양청의 합의에 의해 가능 - (심사관 교육 확대) 6명, 2주 과정(2016년) → 12명, 3주 과정(2017년) * 2020년까지 확대 실시하되, 심사관 해외훈련 예산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 (데이터 교환 확대) 신규 출원, 과거문헌 재분류의 CPC 분류정보 제공 → 신규 출원, 과거문헌 재분류 외에 PCT의 CPC 분류정보 제공 - (품질관리 협력강화) 양 특허청의 분류 일치도를 분석하고, 분류 일치도가 낮은 분야는 협의와 조정 등을 통해 개선
그간의 성과	■ (CPC 데이터 교환) 20차례(2015.7.-2017.8.)에 걸쳐 1,690,439건의 신규분류 및 재분류데이터를 EPO측에 송부 * 우리 청은 공개된 CPC 데이터를 매달 유럽청에 송부하고, 유럽청의 DOCDB(서지 정보 DB)를 다운로드하여 검색 DB에 탑재 ■ (심사관 교육) 7차례('13년~'17년)에 걸쳐 심사관 32명, 분류원 25명이 EPO에서 교육 수료, 이를 통해 CPC 분류 및 분류검색 노하우 습득
향후 추진방향	■ (추진방향) 공개된 특허의 분류정보만 공유중이나, 미공개된 출원에 대하여도 특허분류 정보를 공유하는 '특허분류 워크셰어링' 추진 ■ (기대효과) 각청의 분류업무 중복 방지로 분류·행정비용 절감, 분류 일관성 확보 * 워크셰어링을 통한 분류비용 절감 : IP5 5.6억/1년 예상

□ PCT 연혁

일시	내용
1984.5.10.	■ PCT 가입서 WIPO 기탁 (PCT 제2장 유보) - 36번째 가입국
1984.8.10.	■ PCT 발효 및 국제출원업무 개시 (수리관청 및 지정관청 업무 개시)
1990.9.4.	■ PCT 제2장 유보 철회
1997.9.16.	■ (제24차 PCT 총회)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 지정
1999.12.1.	■ 국제조사기관 및 국제예비심사기관 업무 개시 ■ 국어출원 가능(1998.9.23. 특허법 개정)
2007.4.1.	■ 한국 특허문헌의 PCT 최소문헌 발효 ■ 한국어가 PCT 국제공개어로 시행 (채택: 2007년 WIPO 총회)
2009.1.1.	■ 한국전통지식문헌(KJTK; Korean Journal of Traditional Knowledge)이 PCT 최소문헌에 포함 (채택: 2008년 WIPO 총회)

□ PCT 출원 및 국제조사 현황 (단위: 건수) (* 출처: WIPO Statistics, 2017.10.8. 현재)

○ PCT 출원 접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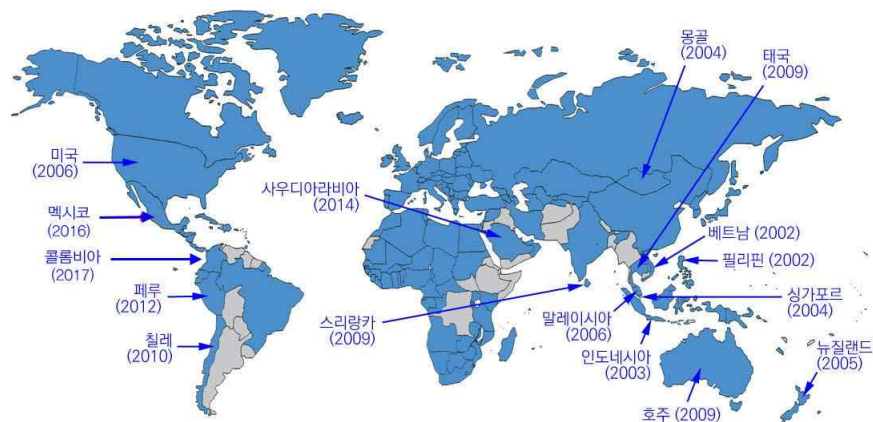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한국	11,869	12,439	13,137	14,592	15,595
미국	52,011	57,686	61,974	57,591	56,675
콜롬비아	4	12	15	12	10

○ 국제조사 접수 현황: 수수료 대폭 인상*에도 연평균 3.7%씩 증가

* 2009.1.(244 USD → 609 USD), 2009.9.(→ 729 USD), 2010.1.(→ 1,092 USD)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EPO (유럽)	75,146	77,412	79,589	79,326	79,937
SIPO (중국)	20,720	23,708	27,603	31,410	44,883
JPO (일본)	41,677	42,270	40,803	43,057	44,462
KIPO (한국)	27,579	30,662	30,644	29,153	28,099
USPTO (미국)	17,120	16,698	21,938	20,888	20,784
세계 전체	195,289	205,238	214,298	217,211	232,872

■ 우리나라를 자국의 PCT ISA로 지정한 국가 현황 (2017.10.8. 현재)



□ 추진 경과

- [2016.12.] 지능정보산업 인프라 조성사업(미래부 주관)에 참여
 - 특허정보원을 통해 특허 지식베이스* 구축(R&D) 추진 및 협약 체결
 - * 인공지능이 학습 가능한 형태로 가공한 데이터
- [2017.4.] 특허청과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간 인공지능 관련 업무협약(MOU) 체결
 - 지능형 특허 검색, 인공지능 상담 서비스를 위한 시범 모델 추진 합의

□ 추진 내용

< 특허분야 지식베이스 구축 >

- [과제내용] 전기전자 분야(IPC H섹션)의 특허 공보를 기반으로 기계학습이 가능한 온톨로지 형태의 DB* 구축 (2017~2019년)
 - * 개념과 개념 간 관계로 표현한 언어로 키워드 검색과 달리 논리적 추론 가능
 - ※ 예산, 연구개발 기간 등의 한계로 향후 他섹션으로 점진적 확대
- [구축대상] 1단계 대상으로 특허기술 용어사전(10만 건), 특허언어 분석 정보 및 도면 태그 정보(100만 건) 등 총 110만 건 구축

< 특허분야 엑소브레인(Exo Brain)* 적용 >

* 사용자와 의사소통 및 기기 간 자율협업을 통한 지식공유 및 지능진화 기술

- [지능형 특허검색] 기존의 키워드 방식에서 벗어나 구문 간 의미 기반의 검색서비스를 위한 파일럿 모델 개발 추진 (2017-2019년)
 - 현재 특허공보 청구항을 기준으로 특허언어 형태 분석 및 청구항간 의미기반 유사패턴 연구 중
- [특허상담 시스템] 텍스트 또는 음성인식 기반의 '특허 상담 서비스'를 위한 파일럿 모델을 3년(2017-2019년)에 걸쳐 개발 및 고도화
 - 특허 상담 녹취 파일의 품질 및 음성 인식률 등을 고려하여, 특허 상담분야 인공지능 파일럿 모델(안) 협의 중